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6>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한다면

집을 떠나 깨달음을 이루고자 출가한 사람들을 우리는 스님이라고 한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마음속에 있는 애욕을 버리고 세상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을 출가한 스님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 먹을 옷을 입고 삭발한 스님들의 차림새는 세상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품새로 사는 까닭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떠나 오로지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스님이란 먼저 부처님의 법을 배워 그 가르침에 정통해야 하고 그 근본 뜻을 깨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공부란 이루기도 전에 부처님 공부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 마음을 쓴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수행자의 옷차림을 하고서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탐욕이나 다름 없다.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원효 스님은 "세상 사람을 속이려고 마치 굶주린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같다" [狗被象皮]라고 하였다. <선가귀감> 56장에서 말한다.

출家人 習外典 如以刀割泥 泥無所用 而刀自傷焉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자르는 것과 같다. 잘라진 진흙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예리한 칼만 망가지는니라.

모습이고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호심출가(好心出家)라고 한다. 갖 출가한 사람들을 위한 책 <사미음의>에서 몸도 마음도 다함께 출가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한 스님이란 생로병사에 중생의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중생계의 모든 것이 덧없어 자신의 것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육친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도 거리길 없이 사양하며 오욕의 깊은 집착을 떨쳐버리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므로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다. 사회 생활에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사는 사람도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처님의 힘을 빌려 구하게 생황을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 넉넉한 절집살림살이 덕에 게을리 살며

중생들 교화 위해 다른 공부 참고할 수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 놓고 외전 마음쓰면 수행에 실패

도 攝御諸根 不染外欲 慈心一切 無所傷害 遇樂不欣 逢苦不戚 能忍如地 故名沙門"라고 하였다.

출가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겉은 출가한 사람의 모습인데 쓰는 마음이 아직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속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세속의 옷을 수행자의 옷으로만 바꾸어 입었을 뿐으로 출가해도 별로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마음은 출가했으나 몸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속에 살지만 언제나 수행에 힘쓰고 사는 사람이나, 중국의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와 같은 분들이다. 셋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법을 모르고 세속의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다. 넷째 몸도 마음도 다 함께 출가한 사람이다. 겉도 출가인의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 위하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이다(佈四愍之多苦 厭三界之無常 辭六親之至愛 捨五欲之深著 不為名利所牽 不為王力所逼 不為邪求活命 不為避懶偷安 為生死為菩提 持信出家)"

출가한 사람이라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면 출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선서, 어록은 내전이라 하고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세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담은 책들을 외전이라고 한다. 외전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대론(大論)>에서 말하기를 "외도의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것은 마치 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자르는 것과 같다. 진흙이 뜻대로 잘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을 쓰면 쓸수록 칼만 망가진다(習外典者 如以刀割泥 泥無所成 而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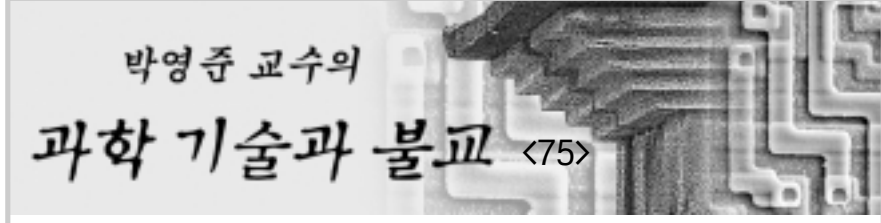
損)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외도의 경전을 읽는 것은 태양빛을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눈만 멀어진다(讀外典者 如視日光 令人眼瞶)"라고 하였다. 이처럼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아두고 다른 공부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등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서쪽 길로 가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공부와는 점점 멀어져 출가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외전보는 것을 무조건 금한 것은 아니다. <유부비나야잡사(有部毘奈耶雜事)>나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을 보면 "불교도들이 부처님 경전 이외에 다른 책들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비구들은 분명히 다른 책들을 섭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여 공부를 많이 한 비구들이라면 공부하는 시간의 삼분의 일은 다른 책들을 읽고 연구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뒷날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혹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쓸 목적이려면 외전 일지라도 참고로 볼 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 세속의 잡사에 취미를 붙이거나 그것에 몰두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익힌다는 것은 갈로 진흙을 자르는 것처럼 수행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것은 출가한 사람이 세상살이에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마치 <법화경>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는 집에서 구하기 위하여 장난감과 보배가 가득한 수레를 주겠다고 방편으로 설득하여 가까스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위험을 모르고 아이들이 다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 없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門外長者子 還入火宅中
문 밖에 나와 있던 장자네 아이들이 다시 불붙은 집 안으로 들어가도다.

■원순 스님(승사사인원임)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5>

랜드 보고서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2020년까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16개를 발표하였다. 그중 8개가 생명과학 분야, 5개가 IT 분야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싸게 짓는 집 등이다. 과연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야 할 만한 가치에 있다.

산업혁명을 경험한 서구인들은 한국인이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러한 전통과 경험 때문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리고 조선 산업을 받아들여 세계 제1의 기술강국이 되었지만, 아직 문화에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젖어있지 않다.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정

을 비행기나 자동차의 설계에서 미분방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고층 건물, 터널, 교량에 이르기까지 유체역학과 구조역학에 기초해서 설계한다. 근대 동양이 뒤진 이유를 과학과 수학의 발전 기회를 놓친 데서 찾을 수 있다.

요즘에도 새로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러한 전통과 경험 때문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리고 조선 산업을 받아들여 세계 제1의 기술강국이 되었지만, 아직 문화에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젖어있지 않다.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정

인류 영향줄 기술 생명과학 포함 16개 발표 도구 넘어 인간·자연 조화된 행복 기여해야

평을 비군 발명들이 서구에서 나왔다. 혹자는 서구인은 물질문명을 발전시켰고, 동양인은 정신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이다. 서구인도 정신문명을 발전시켰으며, 동양인 역시 물질문명을 발전시켰었다. 유럽의 도서관을 기본 사람은 서구인들이 얼마나 찬란한 정신문명을 발전시켰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이베이의 고공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은 동양인들이 얼마나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을 결정지은 것은 신기하게 생각된다. 이유 중 하나는 데카르트 이후 발전한 수학과 수학에 기

초한 과학의 발전이다. 예전에는 기술이 과학과 무관하게 발전되었지만, 근대이후 기술은 모두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요즈

문 밖에 나와 있던 장자네 아이들이 다시 불붙은 집 안으로 들어가도다.

■원순 스님(승사사인원임)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

조계종은 최근 제15회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 수계산림 봉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사흘간 직지사서 열릴 이번 수계산림은 2005년 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니로서 강원이나 동국대 불교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가자에게는 '식차마나니계'가 다소 생소할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식차마나(式叉摩那)가 되기 위해 받는 계(戒)를 뜻합니다. 식차마나란 사미·사미니·식차마·비구·비구니 등으로 구별되는 출가 대중 다섯 부류 중 하나입니다.

남성출가자가 '행자→사미→비구'의 과정을 거친다면, 여성출가자는 '행자→사미→식차마나→비구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식차마나는 여성출가자들에게만 있는 단계로, 식차마나는 2년 동안 미리 구족계의 계품과 위의를 배워 익혀 구족계를 받을 만한 계체(戒體)를 이뤄야 합니다.

<식차마나니계본>에는 식차마나가 배워야 할 네 가지 근본과 여섯 가지 법, 292가지 위(威儀)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가지 근본은 △음식을 행하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살아있는 중생의 목숨을 끊지 말 것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 것 등입니다.

"계행(戒行)은 모든 도과(道果)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고해(苦海)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또한 일체선과(一切善果)의 근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때 스님들의 위의를 한층 빛을 발할 겁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007년 3월 개강

안양불교대학신입생모집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 기초반 : 기초교리 ■ 경전반 : 금강경, 반야경
■ 야간반 : 기초교리, 금강경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선착순모집)

기 초 반	화, 목	오후 14시~16시
경 전 반	금	오후 14시~16시
야 간 반	수	오후 19시~21시

금강경 강의 권기종 동국대학교수

大韓佛敎 曹溪宗
地藏禪院 安養佛敎大學 曹溪宗 安養佛敎文化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문의전화 ☎ 031)444-5935~6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동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에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인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